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서현진
EAI 패널조사연구팀
성신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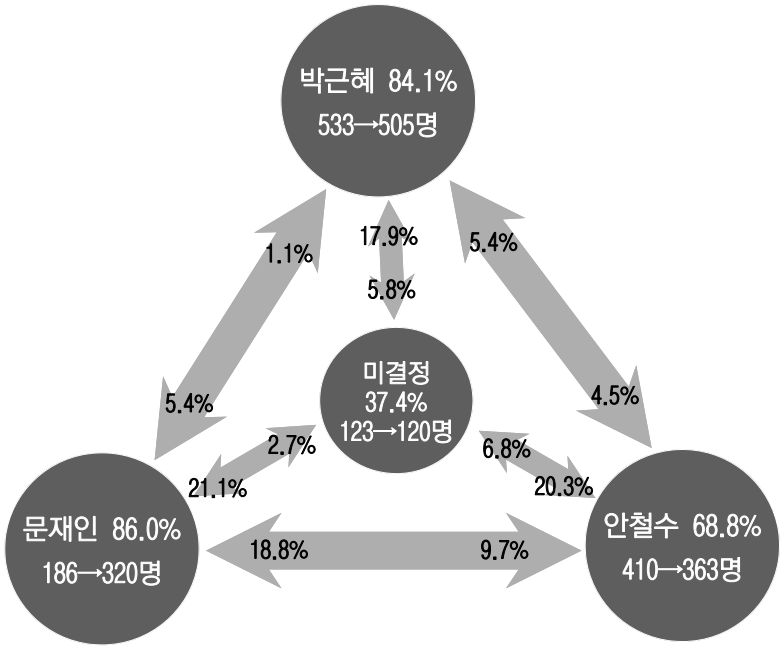
대선후보 빅3의 지지자 이탈 양상과 원인

대선후보 빅3의 지지자 이탈 양상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 둔 시점에서 주요 후보 3인에 대한 지지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지난 8월 새누리당 후보 경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10월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표심 변화는 [그림1]과 같다.

먼저 8월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533명 중 84.1%인 448명은 10월 조사에서도 여전히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통합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었던 8월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186명으로 다소 적었는데 이 중 86%인 160명은 10월 조사에서도 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후보로 나설지에 대한 입장 표명 조차하지 않았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8월 조사에서 410명으로 매우 많았는데 이들 중 68.8%인 282명이 이번 조사에서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확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유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세 후보 지지자간 이동 비율 변화



* 대선패널 1차와 2차 조사 참여자 1,317명 대상

이 메모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표 1] 세 후보 지지자간 이동 비율 변화

8월 \ 10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강지원	박찬종	미결정	계
문재인	횡(%)	1.1	**86.0**	9.7		0.5		2.7	100
	전체(%)	0.2	12.1	1.4		0.1		0.4	14.1
	빈도수	(2)	**(160)**	(18)	(0)	(1)	(0)	(5)	(186)
박근혜	횡(%)	**84.1**	5.4	4.5		0.2		5.8	100
	전체(%)	34.0	2.2	1.8		0.1		2.4	40.5
	빈도수	**(448)**	(29)	(24)	(0)	(1)	(0)	(31)	(533)
안철수	횡(%)	5.4	18.8	**68.8**		0.2		6.8	100
	전체(%)	1.7	5.8	21.4		0.1		2.1	31.1
	빈도수	(22)	(77)	**(282)**	(0)	(1)	(0)	(28)	(410)
김두관	횡(%)	8.3	41.7	29.2	8.3			12.5	100
	전체(%)	0.2	0.8	0.5	0.2			0.2	1.8
	빈도수	(2)	(10)	(7)	(2)	(0)	(0)	(3)	(24)
손학규	횡(%)	21.6	45.9	18.9				13.5	100
	전체(%)	0.6	1.3	0.5				0.4	2.8
	빈도수	(8)	(17)	(7)	(0)	(0)	(0)	(5)	(37)
정세균	횡(%)	25.0	25.0					50.0	100
	전체(%)	0.1	0.1					0.2	0.3
	빈도수	(1)	(1)	(0)	(0)	(0)	(0)	(2)	(4)
미결정	횡(%)	17.9	21.1	20.3		2.4	0.8	37.4	100
	전체(%)	1.7	2.0	1.9		0.2	0.1	3.5	9.3
	빈도수	(22)	(26)	(25)	(0)	(3)	(1)	(46)	(123)
계	횡(%)	38.3	24.3	27.6	0.2	0.5	0.1	9.1	100.0
	빈도수	(505)	(320)	(363)	(2)	(6)	(1)	(120)	(1317)

* 대선패널 1차와 2차 조사 참여자 1,317명 대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표심변화

지지자들의 이동 양상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자 간 표심의 변화이다. 문 후보 지지자의 9.7%(18명)가 안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도 큰 변화인데 그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인 안 후보 지지자의 18.8%(77명)가 문 후보 지지로 마음을 바꾼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눈여겨 볼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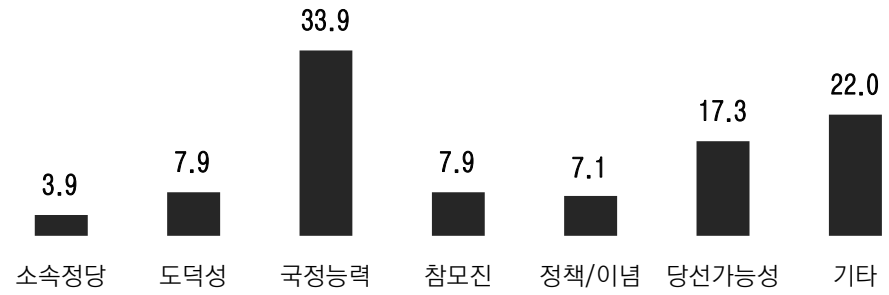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안 후보 지지자 이탈 비율이 가장 높고 이탈자 상당수가 문 후보 지지로 돌아선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와 향후 야권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지, 박 후보 지지율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이번 대선 결과를 가늠하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빅3의 지지자 이탈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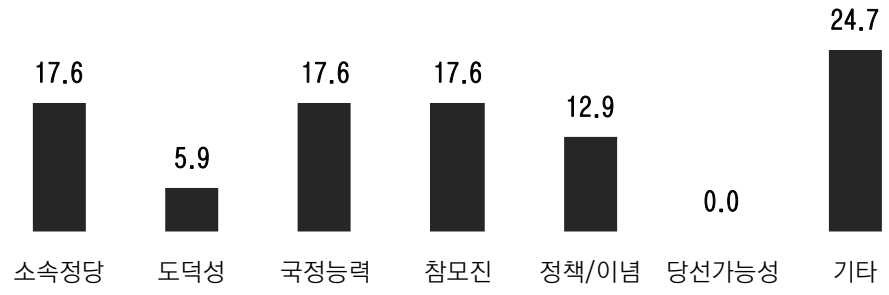
그렇다면 특정 후보로부터 다른 후보로 표심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박 후보 지지 이탈자 85명은 소속정당, 국정능력, 참모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편 문 후보 지지자 중 이탈자 26명은 참모진과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고 도덕성을 이유로 이탈한 지지자는 없었다. 안 후보 이탈자 128명 중에는 국정능력을 이유로 든 응답자가 34%로 월등히 많았고 다음 당선가능성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많아서 현실적 이유로 표심을 바꾼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지자들이 각 후보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지자 결집을 위해 각 후보가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

[그림2] 지지 이탈자의 이탈요인 : 대선패널 1차(8월)-대선패널 2차(10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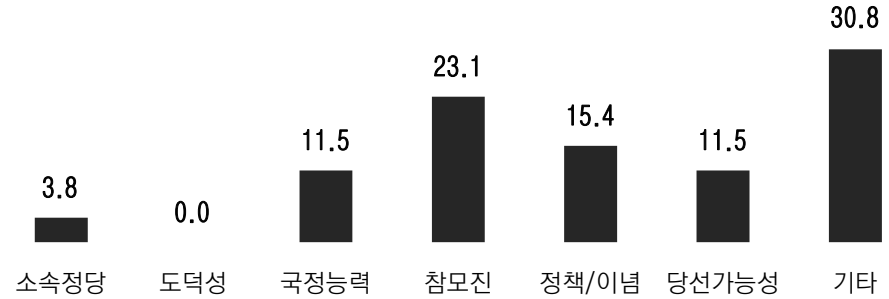
-안철수 후보 이탈자 : 128명



-박근혜 후보 이탈자 : 85명



-문재인 후보 이탈자 : 26명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총선 1차 조사	총선 2차 조사	대선 1차 조사	대선 2차 조사	대선 3차 조사	대선 4차 조사	대선 5차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대선2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0월 11 - 14일 (4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527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5%
패널유지율	76.4% (최초 패널 2,000명 기준)